

상자만 보면 들어가려는 상자 홀릭 아이

천사 같은 얼굴을 하고선 엉뚱하고 기상천외한 행동으로 부모를 당황하게 만드는 아이들. 그 가운데는 몸이 들어갈 만한 상자를 보면 자꾸 몸을 우겨 넣으려는 아이도 있다. '도대체 얘가 왜 이러나?' 싶은 아이의 이해 불가 행동과 숨은 속마음, 해결책을 임신 출산 육아전문 '앙쥬' (ange.co.kr)가 소개했다.

■ 아이는 왜 상자에 들어가는 걸까?

▶ 심리적인 안정감을 줘요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한 번쯤 옷장에 숨거나 작은 공간을 파고들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곳에 들어가면 웬지 보호받는 것 같고 아늑한 기분이 들었다. 아이가 상자에 들어가길 좋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애착 대상인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어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엄마 품과 같이 안전한 공간을 선호하는 본능이 있다. 아이에게 종이 상자나 장난감 통은 비좁고 불편한 공간이 아닌 아늑하고 편안한 공간인 것이다. 아이는 자신만의 공간에서 심리적인 위안을 받고 독립성을 구축해나간다. 이런 행동은 행동반경이 넓어지고 독립심이 커지는 만 2세부터 초등 입학 전까지 주로 나타난다.

▶ 나만의 아지트가 생겨요

아이도 자신만의 공간이 필요하다. 만 2세 무렵이면 서서히 자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는지를 인식하고 자신과 타인을 구분지으며 독립된 공간을 가지고 싶어 상자를 비롯해 옷장 속에 들어가고 식탁 밑, 의자 아래, 소파와 벽 틈새 등 온 집 안을 돌아다니며 자신만의 공간을 찾고자 고군분투 한다. 상자에 몸을 숨기기 시작했다면 아이만의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 스릴 있는 놀이기구예요

아이에게 상자는 재미있는 놀이 도구다. 부모 눈에는 그저 하찮은 물건으로 보이겠지만 아이에게는 자신의 몸에 딱 맞는 맞춤형 장난감인 것. 아이는 상자 안에서



▲ 아이가 상자나 장난감 통에서 노는 것은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다.

사진=shutterstock

몸을 이리저리 움직여 스릴을 즐기거나 밀고 당기며 에너지를 발산한다. 부모의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점도 아이의 마음을 사로잡는다. 은밀하고 특별한 공간에 들어왔다고 여기고 자신이 그곳을 지배한다고 느끼며 좋아한다.

■ Solution 상상력을 자극하는 아이만의 공간을 마련해주세요

아이가 상자에 들어가는 건 그 공간을 좋아하고 편안해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크게 위험한 상황이 아니라면 나오라고 채근하지 말자. 상자나 장난감 통에서 노는 것은 성장 발달에 도움이 된다. 아이는 그곳에서 상상력을 펼치고 자신이 원하는 세계를 만들어나간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사적인 영역이 있음을 인식하게 되고 소유의 개념과 자립심, 개성, 자신감을 얻는다. 특히 독립적인 존재로서 자신만의 성향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따라서 아이의 공간을 인정해주되 위험한 상황에서는 대안을 마련해준다. 넘어졌을 때 깨지거나 다칠 위험이 있는 플라스틱 장난감통이나 오염된 택배 상자 대신 플레이 텐트, 페이퍼 하우스 등으로 아이만의 장소를 꾸며준다.

가든그로브 비타민 전문점

Organic Vitamins

- 500종류 정도의 비타민과 원료구비
- 비타민 원료 : 아사이, 마카, 블루베리, 고지베리베리, 아로니아, 그라비올라, 크랜베리, 비타민나무, 여주농축액, 차콜, 콜라겐, 블렉커런트, 모링가, 로얄제리원액, 페루산삼, 마카, 트리불러스(산삼보다 높은 사포닌 함유)



이제 비타민은 전문점에서 정확한 진단 후 복용하세요.



Tel. (714)534-49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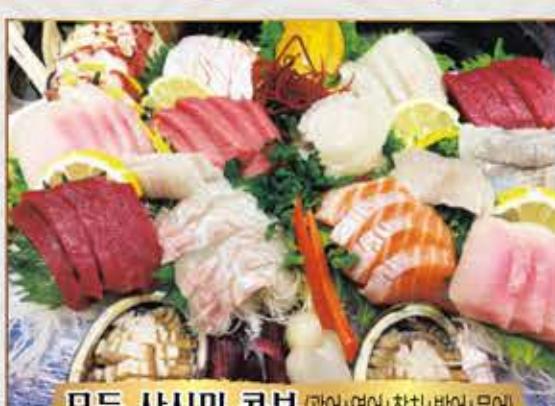
9972 Garden Grove Blvd #G
Garden Grove, CA 92844



신선하고 맛있는 한국직송 활어회 드시려 쿠니 사시미 횟집으로 오세요!



활어 사시미 콤보 (광어+도다리)



모듬 사시미 콤보 (광어+연어+참치+방어+문어)



단체 예약 환영
Opening Hours
Mon-Sat: 3PM-12AM
Sun: 3PM - 10:30PM

714.752.6658
www.kunisashimi.com
7550 Orangethorpe Ave., E100
Buena Park, CA 90621



KUNI
쿠니 사시미 횟집